

서욱 장관, 美육군총장 접견..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논의

파이낸셜뉴스 입력 :2020.11.17 17:40 수정 : 2020.11.17 17:40



서욱 국방부 장관이 17일 오후 취임을 축하하고 지속적인 한미 육군 간 협력을 논의하기 위해 서울 용산구 국방부를 찾은 미국 육군참모총장 제임스 맥콘빌 대장을 접견하고 있다. (국방부 제공) 2020.11.17/뉴스1 /사진=뉴스1

[파이낸셜뉴스] 서욱 국방부 장관은 17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제임스 맥콘빌 미 육군참모총장을 접견했다. 맥콘빌 총장은 서 장관의 취임을 축하하고 지속적인 한미 육군간 협력을 논의하기 위해 방한했다.

서 장관은 미국 육군이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, 번영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높이 평가하면서,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기반으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지원하기 위한 한미 육군 간 소통과 공조를 당부했다.

맥콘빌 총장은 한반도 및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면서, 한미 육군과 국방당국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동맹을 상호보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심화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.

ju0@fnnews.com 김주영 기자

※ 저작권자 © 파이낸셜뉴스. 무단전재-재배포 금지